光州日報

제1794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월 1일 (음력 11월 23일) 화요일

신년 瑞雪, 새희망을 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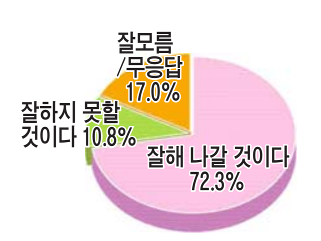
구랍 30일 무등산에 서설(瑞雪)이 내렸다. 질곡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무자(戊子)년 새해를 여는 듯 상서로운 눈송이들이 나무에 쌓여 순백의 터널을 이뤘다. 등산객들이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며 원효사 부근 등산로를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명박 잘 할 것이다"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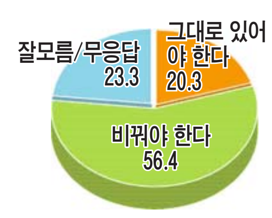
광주일보·리서치 앤 리서치 '광주·전남 의식조사'

현 국회의원들에 불만 '새 인물' 갈증

■이명박 당선자 국정 수행 전망



■지역구 국회의원 재신임 여부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6명 가량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해설 6·7면

이를 뒷받침하듯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선 35%가 60점 미만의 낙제점을, 25%는 60점 이상~80점 미만의 중간 점수를 줬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잘해나갈 것이다'라고 낙관했고,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일보가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2일 리서치 앤 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 의뢰,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0%포인트)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내년 4월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재신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56.4%가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20.3%에 그쳤다.

현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35.1%가 60점 미만의 낙제점을, 24.7%는 60점 이상~80점 미만을 줬고, 80점 이상을 부여한 유권자는 19.0%에 머물렀다.

내년 총선에 투표할 후보의 소속 정당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25.0%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17대 대선에서 신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78.6%)의 3분의 1에도 못미쳐 대선과 총선의 표심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이 48.5%에 달해 방황하는 표심을 반영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범여권 정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1.0%가 '모두 통합해 최소한의 견제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36.3%는 '통합까지는 필요없고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을 잘 수행해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잘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72.3%로 '잘하지 못할 것'(10.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당선자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분야로는 58.6%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가장 기대가 큰 이 당선자의 공약으로도 '일자리 300만개 창출'(41.3%)을 꼽아 실업난 해소를 가장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산강 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38.3%가 '찬성', 33.0%는 '재검토 후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한다', 18.1%는 '반대' 의견을 각각 제시해 찬반이 엇갈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전남, 이젠 도약이다

2008 光州日報 테마…대형 프로젝트 성장동력 삼자

광주·전남의 2008년은 힘찬 '도약의 해'다. 새해 광주·전남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곳곳에서 활기가 넘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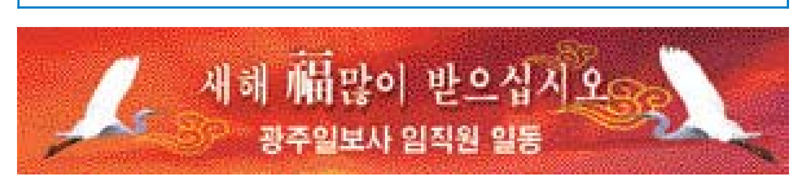
〈관련기사 14·15면〉

광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종합계획에 따른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가 시작되고 광산업 등 첨단산업이 본 궤도에 올라 지역이 한 층 풍요해질 전망이다. 올해에는 금형산업, 첨단 부품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도 활성화돼 광주가 생산도시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우정과 화합의 스포츠 제전인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내 유치 도시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서남권 제1의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전남은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를 서두르면서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또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과 무안기업도시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문을 연 무안국제공항도 국내외 이용객들로 제 위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역시 활기를 띠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서남권 개발, 조선산업 활성화,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남의 2008년은 낙후와 소외에서 탈피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다 올해는 한국 전통문화와 역사,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지닌 광주·전남 공동방문의 해로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남도 땅을 누비며 그 진가를 확인하게 된다.

신정부 역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광주·전남의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지역 핵심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도약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다짐과, 새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광주·전남은 비상의 날개를 달 수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

신년특집 지면 안내

총선의 해 밝았다	4면	이젠 도약이다	14~15면
시·도지사에게 듣는다	5면	지역경제 살리기	17면
시·도민 의식조사	6~7면	연중 캠페인 문화나눔	21면
지구촌 새해 기상도	8면	2013 U대회 광주에서	22면
성공 예약 여수엑스포	11면	신춘문예 당선작	24~25면